



**(주)와이씨텍·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 백미 1,250포 기탁**

(주)와이씨텍·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회장 박수관)은 2월 9일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부산진구에 백미 10kg 1,250포(환가액 5천만 원)를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박수관 회장은 “설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은 성의라도 전할 수 있어 기쁘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다”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세심한 마음으로 살피고, 지속적으로 이웃을 돕는 일에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구청에서도 “매년 명절마다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며 “이번에 기부해 주신 백미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라고 화답했다. 문의 : 복지정책과 복지연계계(605-4355)



**(사)부산진발전협의회 '사랑의 쌀' 350포 기탁**

(사)부산진발전협의회(이사장 박상국)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4일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쌀' 백미 10kg 350포를 부산진구에 기탁했다.

'사랑의 쌀' 나눔 행사는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4번째를 맞이한 부산진발전협의회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협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꾸준히 쌀을 후원하며 따뜻한 공동체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 같은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누적 후원량은 10kg 기준 약 4,000포에 달한다.

박상국 이사장은 “다양한 봉사과 환원 활동을 통해 '이웃사랑·나눔·행복'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 안영일 총괄본부장은 “더 따뜻한 부산진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의 : 복지정책과 복지연계계(605-4355)



**■ 부산진고 특수교육대상 학생 성금**

부산진고등학교(교장 남교국) 특수교육대상 학생 5명이 2월 9일 부산진구청을 방문, 이웃돕기 성금 114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한 성금은 학생들이 지난해 학교 축제 때 운영한 일일 카페와 학생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 판매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전달식에 참석한 도주연 담당교사는 “학생들이 이번 기부를 통해 나눔의 중요함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주택건설협 부산시회 소화기 기탁**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회장 박재복)는 2월 4일 소방 취약계층에게 전달해 달라며 소화기 200대(환가액 350만 원)를 부산진구에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박재복 회장은 “소방시설이 중요한데도 소화기조차 비치하지 못한 분들이 여전히 많다”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소방취약계층들이 화재피해를 예방하고 지역 내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성품은 저소득 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 부산시설공단 성금 300만 원 기탁**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이성림)은 지난 1월 20일 부산진구청을 방문하여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이성림 이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전해져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성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부산진구에서 시행중인 '정다운 이웃사촌'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 사회복지법인 동일 성금 기탁**

사회복지법인 동일(대표이사 김종각)은 2월 3일 부산진구청을 방문,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주)동일·(주)동일 스위트 김은수 사장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성금을 기부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사회복지법인 동일은 매년 명절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날 기탁한 성금은 부산진구 '정다운 이웃사촌'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 밀양공업사 김호상 대표 성금**

밀양공업사(대표 김호상)는 2026년 병오년을 맞이하여 지난 1월 20일 초읍동 주민센터(동장 정간호)에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김호상 대표는 이번 이웃돕기 성금뿐만 아니라 매년 명절마다 초읍동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을 기탁해 왔다. 김호상 대표는 “전포동에서 시작한 사업체가 현재는 김해시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 오랫동안 살아온 초읍동과 지역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매년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 부산진구여성자원봉사회 설 성품**

부산진구여성자원봉사회(회장 김미자)는 설 명절을 앞둔 2월 9일 50만 원 상당의 성품(즉석밥) 500개를 당감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김미자 회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지역의 소외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선물을 전달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진구여성자원봉사회는 매년 명절마다 소외계층을 위한 성품을 전달하는 등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양승인부산흥부외과 '떡국키트' 기탁**

양승인부산흥부외과(원장 양승인)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아동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2월 11일 부산진구에 '설 떡국 키트' 120개를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양승인 원장은 “아이들이 따뜻한 떡국을 먹으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라며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전달한 떡국 키트는 환가액 230만 원 상당으로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아동 12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 대우건설 전기장판 200장 기탁**

(주)대우건설은 설 명절을 앞둔 2월 3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전기장판 200장(환가액 1,000만 원)을 부산진구에 기탁했다. (주)대우건설 관계자는 “작은 정성이지만 부산진구의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나눔 활동을 지속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번에 기탁한 성품은 '부산시민공원 푸르시오' 현장과 '서면씨앗더뉴' 현장에서 마음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